

에스더 7:1-10**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악한 자의 교만을 사용하심 / 의로운 자를 높이심****M: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도입**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 공의가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증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에스더와 하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며, 공의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생생히 드러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사건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담대함과 하만의 몰락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지 1: 악한 자의 교만을 사용하심 (1-6절)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마침내 왕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하만의 음모를 고발합니다. 왕이 물었을 때 에스더는 담대히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의 악한 계획 때문입니다.” 이 고발은 단순한 순간적 결단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준비했습니다. 하만은 왕과의 가까운 관계와 자신의 지위를 믿고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향한 악한 음모를 꾸몄지만, 그 교만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의 교만을 당신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만의 교만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어느 부자가 자신의 재산과 성공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만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공의를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대지 2: 의로운 자를 높이심 (7-10절)

하만이 에스더의 고발 앞에서 절망에 빠져 왕후에게 목숨을 구걸할 때, 왕은 그의 행동을 보고 격노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운 50규빗 높이의 나무가 그를 위한 처형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고,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에스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결론 및 적용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와 하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선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한 자가 성공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늦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14**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창조의 근원 / 육신이 된 말씀****M: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도입**

“말씀”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언어를 넘어 의미와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가장 깊이 있게 알려줍니다.

대지 1: 창조의 근원 (1-5절)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의 한 시점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그 창조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십니다.

특히 4-5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선물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며, 빛은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셨고, 그 빛이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대지 2: 육신이 된 말씀 (6-14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육신으로 입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 존재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아기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결론 및 적용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빛을 붙잡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9-14**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해****부족함을 채우시는 / 영광을 나타내시는****M: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는 분입니다.****도입**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제한된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대지 1: 부족함을 채우시는(9-11절)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당시 기준으로 하찮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족한 것을 사용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보다, 그 기적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참된 목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의식주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양식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만족은 세상적인 공급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대지 2: 영광을 나타내시는 (12-14절)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모두 거두게 하십니다.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분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단지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요 6:15).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우리를 도와주는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우리를 그 영광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결론 및 적용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분의 손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의 사역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25-33**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는 믿음****어려움을 예고하시는 주님 / 세상을 이기신 주님****M: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도입**

우리 삶에는 여러 형태의 고난과 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때로는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묻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과 승리의 의미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지 1: 어려움을 예고하시는 주님 (25-28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을 통해 모든 진리가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앞으로 직면할 혼란과 고난에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환난이 우리 삶의 일부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자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중보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집사님이 암 수술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 고난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야말로 고난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는 열쇠입니다.

대지 2: 세상을 이기신 주님 (29-33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야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며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곧 닥칠 십자가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흩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혼자 둘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선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 덕분에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평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적용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승리와 평안을 누리며, 이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